바 亦是 이미 報告된 七基와 같이 麗代의 所作이라 하겠다。

石塔內에 多數基의 小形塔을 供養하는 例는 桐華寺石塔 ③·奉化 西洞里東三層石塔 等 ④의 九十九基供養例를 비롯하여 禪林院址三層石塔 ⑤과 其他例가 있는데 東院里石塔도 그 類例의 系統에 두어야 할 것이다。

註

① 金永培「公州新豊里三層石塔內發見遺物」(考古美術第四卷第八號)

② 拙稿「東院里石塔內發見 蠟石製小塔」(史學研究第十七號)

③ 李弘稙「桐華寺金堂庵 西塔 舍利藏置」(亞細亞研究第一卷第二號)

④ 黃壽永「奉化西洞里東三層石塔의 舍利具」(美術資料第七號)

⑤ 一、秦弘燮「禪林院址 三層石塔內 發見小塔」(美術資料第九號)
二、黃壽永「禪林院址石塔發見 小塔五基」(美術資料第一〇號)

## 資料

### 鶴駕山 磨崖佛立像

秦 弘 燮

榮州郡 平恩面 江東里 俗稱 절골 막등산 西北麓에 一大岩石이 突出되고 이곳에 佛像一軀가 陽刻되었는 바 頭部가 切斷되었다。지금 좁은 溪谷이 구비쳐 돌아가는 西北方一角에는 中央線 鐵道의 一部를 볼 수 있으나 原來 이곳이 安東에서 서울로 通하는 國道였다고 하며 이 磨崖佛은 이 國道와 相對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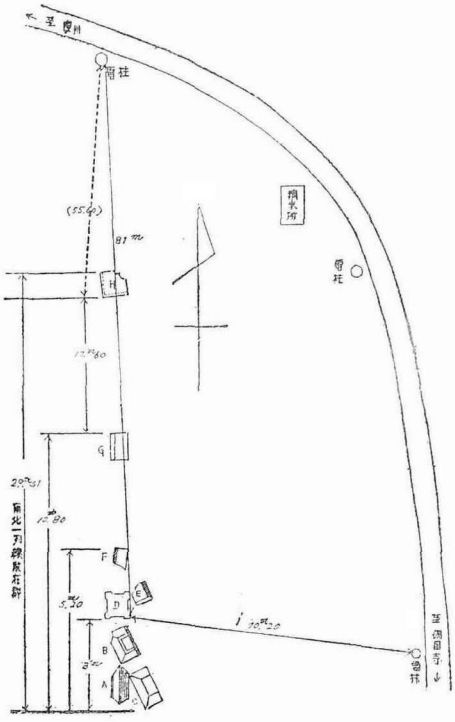
佛像은 立像으로 胸部以上은 浮刻되었고 그 밑은 陰刻線으로 되어 있다。法衣는 通肩이고 衣紋은 어깨에서 平行線으로 表現되었으나 下部는 매우 희미하다。左手는 內掌하여 拇指와 人指를 대고 右手는 亦是 內掌하여 拇指와 長指를 대고 있음으로 무슨 手印인지 알기어렵다。安東 燕尾寺址 磨崖佛과 類似함을 보겠으나 右手에 花枝를 잡고 있음으로 尊名을 決定하기어렵다。발밑에서 頭部 切斷線까지 約 四m 肩幅 約一·三五m이며 切斷된 頸部는 徑 四五cm이다。이 磨崖佛에서 注目되는 바는 佛像 肩部 位置에서 左側으로 高 約二〇cm의 四個의 龕室이 있는 바 幅은 一六cm에서 三五cm로 大小不同이며 佛像과 接해 있는 一龕은 제법 跏趺座한 坐像의 輪廓이 뚜렷하나 밖으로 갈수록 龕形의 輪廓線만 있어 未完成으로 보여진다。磨崖佛에 龕室을 配置한 매우 稀貴한 遺例라고 할 것이다。岩石 上面에 七、八個의 圓孔이 있음은 覆蓋의 施設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慶州 石窟庵과 關聯지을 수 있는 石窟寺院의 一種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이곳의 地理的 位置로 보나 榮州 奉化地區의 磨崖佛과의 聯關을 생각할때 매우 興味있는 遺蹟이라고 할 것이다。



### 慶州 排盤里發見 石塔材

秦 弘 燮

慶州 望德寺址 西便 慶州市 排盤二里一帶에서 耕地整理 作業 中 同里



七九六 李達慶氏 논에서 지난 三月 下旬 石塔材가 發見되었다。그中 一部는 旣히 露出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今般 그 全貌가 들어나게 되었다。이 消息을 接하여 慶州博物館에서 三月 二十九일 現場調査가 이루어졌고 三山調査團에 依하여 確認되었다。이 塔材들은 圖面에서와 같이 南北線上에 놓여 있었고 이 線을 따라 整理前에는 灌水路가 있었다고 한다。이번에 露出된 塔材는 總 八個로 基壇 甲石、塔身、屋蓋石 等이 包含되어 있었으나 復原은 不可能하다。이 塔材들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A) 屋蓋石：받침 四段의 屋蓋石
받침高 一八。五cm 屋蓋高 三五cm 最下端幅 五三。八cm

(B) 屋蓋石：받침高 二四cm 屋蓋高 三三cm 最下端幅 六五cm 最上段幅 五四cm

(C) 屋蓋石：二枚構成의 한쪽뿐이다。
추녀幅 一五二cm 最上端幅 七〇cm 이 三個의 屋蓋石은 三層을 이루었든 것 같다。

(D) 塔身：高 四〇cm 幅 八一。五cm 隅柱幅 一五cm

(E) 基壇甲石：

(F) 屋蓋石：前記 屋蓋石과의 別途의 것이다。高 三五cm

(G) 用途不明石材：七三×九四×二八cm

(H) 基壇甲石：四枚構成中 一石이다。一一五×一一一cm

以上의 塔材로 보아 二基의 石塔이 있었던 것을 알겠고 그 中 一塔은 三層塔으로 推定되었다。(圖面은 慶州博物館長 朴日薰氏가 作成한 것이며 實測도 同氏의 報文에 依하였다)

〈附 記〉 이 塔材가 發見된 後 現場은 保存되어 있으며 三山調査團의 現地踏査時에는 H石 北方 約 十m 地點에 石燈 蓋石 一枚가 露出되어 있었다。

## 晋陽郡 大坪面 大坪里(한들) 先史時代의 遺蹟과 遺物

金 相 朝

一

大坪里「한들」은 晋州市內에서 山淸、咸陽、居昌方面으로 通하는 國道를 北進하기 約 十二km를 달리면 晋陽郡 鳴石面「네거리」마을(舊支署所在地) 國民學校앞에 이른다。이곳에서 西편으로 뻗은 길을 擇해 約四km 달리면 市場이 나오고 바로 이곳이 石劍이 나온 곳이다。

이곳 地形은 左靑龍 右白虎가 南쪽으로 휘감아 제법 아늑한 고장으로 西쪽 山밑으로는 山淸 鏡湖江과 梁川江 그리고 南砂川의 큰 江물이 合水되어 흘러 南江으로 進入하는 全國에서도 水源좋은 곳이다。

南쪽에는 東에서 西로 連結되어 北上하여 近年에 築造된 防水堤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南江땜工事로 因한 溜水에서 이 肥沃한 들판을 살리기 爲해 一九六七年에 이룩한 防水堤인 것이다。

이 防水堤工事때 많은 支石墓가 破壞되었으며 이곳에서 石劍 石槍 石刀 石鏃 管玉 丹塗항아리 등이 無數히 出土된 바 있었다。